



제주형 체육고 설립 여부 연내 결론 낸다

고의숙 교육감 교육행정 질문서 “12월까지 판단”
정무부교육감 미임용… 소통협력관으로 기능 보완
특수학교 정원 확대·성산고 IB “의지·준비도 검토”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올해 안에 제주형 체육고등학교 설립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이 이달부터 운영 예정인 TF(태스크포스·전담 조직)의 협의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고 교육감은 9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오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질의에 “12월까지 체육고 설립과 관련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제주형 체육고 설립 검토를 위한 전문가 TF팀’을 구성 중이며, 이달 안에 첫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고 교육감은 ‘올 연말까지 체육고 설립에 대한 명확한 결론과 후속 일정을 공개해 달라’는 오 의원의 요구에도 “추진하는 과정마다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체육고 신설이 아닌 남녕고의 체육특성화반처럼 ‘특별반’ 추가 지정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학생 통학, 기숙사 운영 등의 문제를 고려해 “기존 학교에 특수 목적의 특별반을 지정하는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고 제안했다. 고 교육감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TF팀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 교육감이 임기 내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조례 개정 등의 절차 없이는 새로운 문젯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교육감이) 교육의원 시절에는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안다. 그 소신이 분명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년 동안 조직표 상에 (정무부교육감 자리가) 공석으로 남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교육감은 “제주 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무부교육감이 꼭 필요한가를 여러 번 확인했고, 함께 토론했던 의원님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었다는 걸 말씀드



9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고의숙 교육감.

제주도의회 제공

린다”며 조직 개편으로 교육감 직속 ‘소통협력관’을 두고 행정부교육감, 실과과장 등의 역할을 확대해 정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오은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흥동)은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약 1800명에서 2026년 2200명으로 20% 증가한 반면, 도내 특수학교 3곳의 정원은 같은 기간 약 660명에서 720명으로 9%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특수교육 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질의했다.

이에 고 교육감은 2028년 중 제주영지학교와 서귀포온성학교의 교사동 증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수학교 정원이 현재 724명에서 2029년 78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육감은 ‘성산고 IB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표선면) 의원의 질의에 “(IB와 직업계 분야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국내에는 없는 형태”라며 그동안 실현 가능성을 살폈으며 학교 구성원의 의지와 준비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고수온에 속수무책… 우력 최대 피해

최근 5년간 양식어류 1억2500만마리 이상 폐사
문대림 의원 “품종 전환 등 대응체계 더 촘촘히”

‘국민 횡감’ 조피볼락(우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4일까지 고수온으로 폐사한 어류는 전국 455개 양식어가에서 1353만3000마리로 추정된다. 이는 잠정치로 최종 피해는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2022년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올해까지 최근 5년간 1억2504만8000마리의 양식 어류가 폐사했다. 굴과 홍합 등을 합치면 피해는 더 늘어난다. 구체적 재산피해가 아직 산출되지 않은 올해를 제외하고 2022~2025년 전국 양식어가의 고수온 피해액은 2055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어종별로는 ‘국민 횡감’ 조피볼락(우력)이 가장 많이 폐사했다. 조피볼락은 15~18도의 수온에서 먹이 섭취가 활발해 잘 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온이 23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먹이 섭취량이 감소하며 25도를 넘어가면 생리기능이 저하된다. 넘치(광어)도 큰 피해를 입었다. 넘치는 동기간 네 차례(2021·2023·2024·2025년)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제주지역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가 피해는 2024년부터 본격화했다. 2024년에는 제주 양식 어가 77곳이 어류와 전복 등 221만5000마리가 폐사해 53억4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2025년에는 양식어가 62곳에서 180만마리의 어류가 폐사했고, 52억27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일까지 양식어가 45곳에서 넘치 67만7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온 현상이 해마다 거듭되면서 피해 보상 관련 정부 지출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39억 6800만원이었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국고 지원액은 지난해 그 두 배 수준인 274억 5400만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271억 20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를 넘어섰다.

문 의원은 “매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방식으로는 어가의 생계도, 양식업의 지속가능성도 지킬 수 없다”며 “고수온에 강한 품종으로의 전환과 양식 적지로의 이전 지원, 재해보험 보장 강화 등 대응체계를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시, 추석 앞뒤통 농축산물 부정유통 집중 단속

23일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
상품의 감귤 유통 단속 병행

제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둔 농산물 소비·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상품의 감귤유통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국산·수입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비롯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원료 중 배추,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도 벌써 원산지 미표시 등 4건이 적발돼 과태료 96만원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시는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 오는 15일 이후 상품의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날

인 14일부터 감귤유통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감귤유통 지도단속반 5개반·40명을 편성해 지역 내 선과장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품의 감귤의 출하·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추석을 앞둔 오는 23일까지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축산물 위생점검도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관리 적정 여부, 축산물 취급·보관 과정에서의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 여부, 선물용 축산물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등이다. 백금타기자 haru@ihalla.com

9월 재산세 671억 부과
서귀포시, 징수독려반 운영

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8533건에 대한 671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세목별 부과 현황은 토지 625억원(13만2273건)과 주택 46억원(1만6260건)이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부과 건은 347건·295억원으로 전체 부과세액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청과 읍면동에 징수독려반을 운영해 ‘모바일 전자고지’ 원스톱 납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납부 독려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백금타기자

양배추·브로콜리 값아먹는 배추순나방 주의보

정식 후 30일 이내 집중 예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양배추, 브로콜리 등 배추과 작물을 값아먹는 배추순나방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재배 농가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9일 서부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배추순나방은 말린 잎 속이나 생장점 안쪽에 숨어 새순을 파먹는 해충으로 정식(아주심기) 초기에 생장점이 피해를 입으면 브로콜리는 꽃봉오리가 제대로 생기지 않고 양배추는 속이 차지 않거나 작은 덩어리 여러 개로 나뉘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9월은 높은 기

온과 잦은 비의 영향으로 배추순나방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라 재배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농가는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정식 후 30일 안에 새로 자라는 잎과 생장점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잎말림이나 값아먹는 자국, 생장점 피해가 확인되면 곧바로 적용 약제로 방제하고 발생이 많으면 7일 간격으로 두세 차례 방제해야 한다. 약제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강병수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식 초기 배추순나방 피해는 수확기 상품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발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붙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